

세계 맥주시장 동향

기획조사팀

2009년 세계 맥주시장은 전 세계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19년 만에 소비량이 감소하였다. 더욱이 맥주에 대한 주세인상과 그에 따른 가격인상, 와인 및 증류주와의 경쟁 등은 맥주소비 감소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 비록 세계 최대 맥주시장인 중국에서 4.6%의 소비증가가 있었지만, 중국 역시 최근 들어 소비증가세가 감소추세에 있으며, 중국의 분전만으로는 일본, 미국, 독일 등 기존 주요 시장의 시장침체를 만회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총 맥주소비는 감소하였으나 상위 15개 맥주제조사의 판매는 2008년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비록 15개사중 AB인베브(Anheuser-Busch Inbev) 및 하이네켄(Heineken)을 포함한 7개사는 판매가 감소하였으나, 나머지 8개사의 판매증가로 타사의 판매부진을 만회하였다. 한편 상위 15개사가 세계 맥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이른다.

2009 세계 상위 15개 맥주 제조사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회사명	본사위치	판매량		증감 08-09	점유율(세계시장)	
			2008	2009		2008	2009
1	Anheuser-Busch Inbev	벨기에	368.5	358.8	-2.6%	21.0%	20.6%
2	SABMiller	영국	210.4	212.6	1.0%	12.0%	12.2%
3	Heineken	네덜란드	166.9	165.7	-0.7%	9.5%	9.5%
4	Carlsberg Breweries	덴마크	109.3	116.0	6.1%	6.2%	6.7%
5	China Resources	중국	72.6	83.7	15.3%	4.1%	4.8%
상위 5개사 소계			927.6	936.8	1.0%	53.0%	53.7%
6	Tingdao Brewing	중국	53.8	59.7	11.0%	3.1%	3.4%
7	Grupo Modelo	멕시코	52.3	52.5	0.4%	3.0%	3.0%
8	Molson Coors Brewing	미국	51.5	50.0	-3.0%	2.9%	2.9%
9	Beijin Yanjing Beer Group	중국	42.2	46.7	10.7%	2.4%	2.7%
10	Kirin Brewery	일본	33.3	32.6	-2.0%	1.9%	1.9%
상위 10개사 소계			1,160.7	1,178.3	1.5%	66.3%	67.6%

11	Asahi Brewery	일 본	28,5	27,7	-2,8%	1,6%	1,6%
12	Guinness Brewing(Diageo)	영 국	22,4	22,4	-	1,3%	1,3%
13	Efes Beverage Group	터 키	22,5	22,1	-1,8%	1,3%	1,3%
14	Kingstar Beer Group	중 국	18,1	19,3	6,5%	1,0%	1,1%
15	San Miguel Brewery	필리핀	17,6	17,4	-1,5%	1,0%	1,0%
상위 15개사 소계			1,269.8	1,287.1	1.4%	72.5%	73.8%

※ 자료 : Impact Databank

‘버드와이저(budweiser)’ 로 유명한 세계 1위 맥주제조사 AB인베브의 경우 2009년 3억 5,880만 헥토리터의 맥주를 판매하며 2위인 SAB밀러(SABmiller)에 1억 4,000만 상자 이상을 앞서 있다. 그러나 AB인베브는 2008년에 비해 2.6%의 판매감소를 기록했다. 특히 미국, 유럽, 아시아 지역에서 판매 부진을 보이는 등 어려운 한해를 보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남미 최대 맥주시장인 브라질에서 판매가 증가한 것이었다.

아시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은 세계 최대 맥주소비국으로 2위인 미국에 거의 2배 가량을 앞서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예전과 같이 두자리수의 소비증가율을 기록하지는 못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비증가율의 하락은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다. 그러나 중국의 1인당 연간 맥주소비량은 32.1리터로 세계 평균인 15리터보다는 많은 편이지만, 독일(109리터), 영국(82리터), 일본

2009 상위 15개 맥주제품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제품명	회사명	본사위치	판매량			증감(%)	
				2007	2008	2009	07-08	08-09
1	Budweiser	Anheuser-Busch Inbev	미 국	90,4	91,0	88,5	0,7%	-2,7%
2	Snow	China Resources	중 국	51,2	61,0	72,4	19,1%	18,8%
3	Skol	Anheuser-Busch Inbev	브라질	35,4	35,6	36,7	1,0%	2,5%
4	Miller	SABmiller	미 국	34,8	33,7	33,0	-3,0%	-2,3%
5	Corona	Grupo Modelo	멕시코	32,3	32,4	32,5	0,3%	0,3%
상위 5개사 소계				244.0	253.7	263.0	4.0%	3.6%
6	Brahma	Anheuser-Busch Inbev	브라질	26,6	27,9	29,7	5,0%	6,5%
7	Tsingtao	Qingdao Brewing	중 국	19,3	24,2	29,6	25,4%	22,3%
8	Heineken	Heineken	네덜란드	28,0	29,1	28,5	4,0%	-2,1%
9	Coors	Molson Coors Brewing	미 국	25,0	26,1	26,2	4,5%	0,5%
10	Asahi	Asahi Brewery	일 본	23,7	23,0	22,4	-3,1%	-2,4%
상위 10개사 소계				366.6	384.0	399.5	4.8%	4.0%
11	Yanjing	Beijin Yanjing Beer Group	중 국	17,2	18,7	21,4	9,0%	14,3%
12	Harbin	Anheuser-Busch Inbev	중 국	16,9	17,7	19,4	4,7%	9,3%
13	Baltika	Carlsberg Breweries	러시아	16,0	19,0	17,9	18,5%	-5,5%
14	Busch	Anheuser-Busch Inbev	미 국	14,8	15,5	16,1	4,5%	3,9%
15	Natural	Anheuser-Busch Inbev	미 국	13,8	13,9	14,4	1,0%	3,4%
상위 15개사 소계				445.3	469.0	488.7	5.3%	4.2%

※ Light 맥주 및 기타 연관 제품 포함

(48리터) 등 타 주요 맥주소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라 향후 지속적인 소비증가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설화맥주(Snow)로 유명한 중국내 1위 맥주업체인 화륜설화(China Resource Snow Brewery)는 중국 전 지역으로의 사업확장을 위해 여러 중소 맥주업체들은 인수하고 있다. 화륜설화는 현재 중국내에 70여 개의 맥주제조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 일본에서는 맥주 유사음료인 제3맥주가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으나 일반맥주와 발포주의 판매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체적인 맥주시장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미 주 세계 2위 맥주시장인 미국에서는 2009년 6년만에 처음으로 맥주소비가 감소(-1.8%)하였으며, 와인과 증류주에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 메이저 맥주사들의 제품의 소비가 감소한 반면 'Blue Moon Belgian White Ale', 'Fat Tire amber Ale'와 같은 특수 맥주(+9.3%)와 아이스맥주(+6.95)는 판매가 증가하였다. 한편 미국내 1위 수입맥주인 '코로나(Colona)' 역시 경제위기의 여파 속에 3년째 미국내 판매가 감소하였다.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멕시코에서 맥주소비가 증가하였다. 브라질의 경우 2009년 약 1억 헥토리터의 맥주가 소비되어, 2008년에 비해 소비량이 크게 감소(-10%)한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3위 맥주소비국이 되었다. 브라질 시장에서는 AB인베브가 'Skol' 과 'Brahma'를 앞세워 시장점유율 7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 6위 맥주시장인 멕시코에서는 중국과 같이 최근 들어 맥주소비 증가율이 정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9년의 경우 신종플루와 미국과의 국경 인근에서 발생한 마약사건 등의 여파로 맥주소비가 더욱 부진하였다.

2009 상위 10개 맥주 소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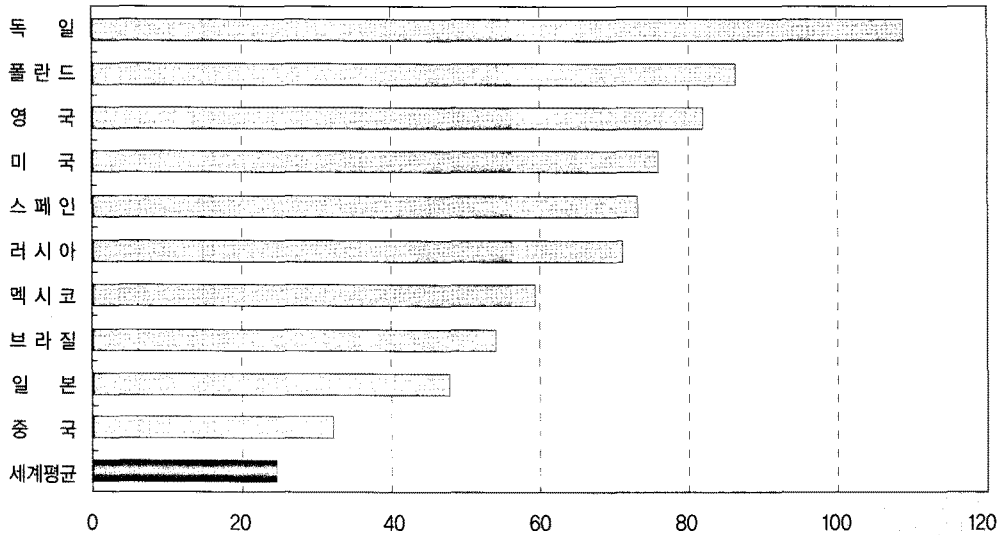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헥토리터

순위	국가	소비량				증감(%)		
		2006	2007	2008	2009	06-07	07-08	08-09
1	중 국	339.0	381.2	413.0	431.9	12.4%	8.3%	4.6%
2	미 국	238.0	240.7	241.6	237.1	1.1%	0.4%	-1.8%
3	브 라 질	95.4	102.2	103.6	104.5	7.1%	1.4%	0.8%
4	러 시 아	96.0	111.0	110.6	99.5	15.6%	-0.5%	-10.0%
5	독 일	955	91.9	91.1	89.9	-3.8%	-0.8%	-1.4%
상위5개국 소계		863.9	926.9	959.9	962.9	7.3%	3.6%	0.3%
6	멕 시 코	60.7	63.3	64.3	64.7	4.4%	1.6%	0.6%
7	일 본	63.4	62.7	61.1	59.8	-1.1%	-2.5%	-2.1%
8	영 국	55.6	53.1	51.5	50.5	-4.4%	-3.2%	-1.9%
9	스 페 인	32.7	33.2	32.6	32.7	1.5%	-1.8%	0.3%
10	폴 란 드	32.8	35.0	35.9	32.3	8.3%	1.7%	-10.1%
상위10개국 소계		1,109.0	1,174.7	1,205.3	1,202.9	5.9%	2.6%	-0.2%

※ 자료 : Impact Databank

2009 주요국 1인당 연평균 맥주소비량

단위 : 리터



☞ 유럽 서유럽에서는 인구고령화, 주류판매점 금연제도 실시, 타 주종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유럽 최대의 맥주소비국인 독일의 경우 오랜 기간동안 맥주 소비가 정체되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맥주를 마시는 국가이며, 약 1,300개의 맥주제조장이 존재하는 맥주의 나라이다.

그 뒤를 이어 영국, 스페인 등에서 많은 맥주가 소비되고 있으며, 영국의 경우 2009년 맥주 소비가 전년에 비해 1.9% 감소한 반면 스페인에서는 소폭 증가(+0.3%)하였다.

2007년까지 근 10년간 맥주 소비가 크게 증가했던 러시아에서는 2008년부터 2년째 맥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이는 경제위기와 더불어 러시아 정부의 맥주세 인상의 여파로 인한 것이다. 맥주 가격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저급의 보드카 등을 맥주 대신 마시게 되었고, 이는 러시아 내 맥주사업자들에게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가 2010년 9월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의 주류를 노점에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함에 따라 맥주 소비 증가에 탄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아프리카 아프리카 최대의 맥주 소비국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2009년 맥주 소비가 2.6% 증가하였다. 남아공 내 1위 맥주 업체인 SAB밀러의 판매는 약 1% 감소한 데 반해, 디아지오 및 Namibian Brewery와 합작사를 설립한 하이네켄은 남아공에서 '하이네켄'과 '암스텔(Amstel)' 맥주 판매를 통해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 남아공 이외의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SAB밀러가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량 역시 증가세에 있다.

〈출처〉 Impact' 지 2010년 10월호